



SAMSUNG
 Galaxy S9 | S9+

Market Index <5일>	4판
코스피지수	2437.52 ▲ +29.46
코스닥지수	868.93 ▲ +6.42
국고채금리 (3년물, 연%)	2.175 ▲ +0.007
환율 (원·달러)	1059.70 ▼ -0.10 <small>환율(100엔당) 990.76 원유로 1299.83</small>
일본 닛케이	21,645.42(+325.87)
WTI(유가)	63.37달러(-0.14)

NH투자증권

한국경제

2018년
 4월 6일 금요일
 hankyung.com

제17120호 | 대표전화 02) 360-4114

최저임금 부담 결국 대기업에 떠넘기는 정부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나눠서 져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A13면

정부는 원청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한 하청기업에 보복한 것이 적발되면 정부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협의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가 끊기는 하청업체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수밖에 없어 부담이 늘어난다.

또 의무적으로 협상에 나가야 하는 기업의 범위도 넓어진다. 납품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당정은 이를 위탁·수탁 관계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업종은 예로 들면 지금은 부품 납품업체 등만 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작업복 공급업체나 구내식당 운영업체도 단가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가 조정이 나타나야 하는 기업 수가 크게 늘어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납품단가에 반영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얘기다. 문해정 기자 seonmoon@hanky



국회는 오늘도 쉼니다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5일 국회 본회의장은 텅 비어 있다. 개회 나흘째인 이날까지 여야는 헌법개정안, 추가경정예산안, 방송법 등과 관련한 전방위 충돌로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텅 빈 韓 국회 ... 프랑스는 의원 30% 줄인다

마크롱, 노동 이어 정치개혁
 임시국회 문도 못 여는 한국
 최저임금 공청회마저 건너차



프랑스 정부가 4일(현지시간) 상·하원 의원 정원 30% 축소, 선출직 공무원 3연임 금지, 하원에 비례대표 도입, 예산안 표결 시한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정책 결정 속도를 높이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깨기 위한 조치다.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에 이은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개혁 3탄'이다. ▶관련기사 A3면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프랑스 하원 의원은 577명에서 404명으로, 상원 의원은 348명에서 244명으로 준다. 차기 총선(2022년)부터는 하원의 15%가 비례

표로 선출된다. 현재는 모두 지역구에서 뽑힌다. 인구가 9000명 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한 선출직 공무원은 3연임이 금지되며 예산안 표결 시한은 70일에서 50일로 줄어든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프랑스 정치가 비효율적인 데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도 이날 "개혁안은 의회의 효율성, 대표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정치개혁은 한국과 대비된다. 한국 정치는 대표적인 '고비용·저효율' 구

표로 국민의 의견을 받고 있지만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일하지 않고 놀면서 수단만 타간다"는 비판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회는 지금도 개점휴업 상태다. 4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문을 열었지만 5일까지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까지 취소되면서 민생법안 처리는 사실상 방치됐다. 국회는 지난 3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 딱 하루 형식적인 본회의만 한 뒤 문을 닫았다. 주용석/김형호 기자 hohoboy@hankyung.com

현대백화점그룹, 순환출자 완전 해소

현대백화점그룹이 5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3개의 순환출자 구조를 완전히 해소했다. ▶관련기사 A15면

현대백화점그룹 지주회사 격인 현대그린푸드와 현대쇼핑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정지선 회장과 동생인 정교선 부회장의 계열사 간 지분 매입 및 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 회장은 우선 현대A&I 지분 21.3%를 매입, 하나의 순환출자 고리

를 끊었다. 정 부회장은 나머지 두 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현대쇼핑이 보유한 현대그린푸드 지분 7.8%를 사들였다.

이번 지분 거래를 통해 정 회장의 현대A&I 지분은 52%에서 73.4%로 늘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주주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안재광 기자 ahnj@hankyung.com

“제발 GM 철수 막아달라” 오토젠의 호소

(자동차 프레이밍업체)

“대우車 부도 때 죽을 고비 함께 견뎌 직원들 어쩌라고”

조홍신 오토젠 대표(사진)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20년 가까이 가족처럼 지낸 직원들과 회사의 앞길에 막막하기 때문이다. 조 대표를 만난 건 5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산업회관에서 열린 '한국 GM 경영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다. 그는 “18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려

고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2000년 젊은 나이에 대우자동차 부도를 겪었다. 당시 그는 병역 의무를 마치자마자 어머니인 이연배 사장(현 회장)이 경영하는 오토젠에 입사했다. 입사하자마자 대우자동차가 부도났다. 자동차 프레이밍 전란을 대우자동차에 납품하던 때였다. 그

는 정직원 300명 중 100명이 그만두는 것을 봤다. 연 200억원 가깝던 매출이 대우자동차 부도 직후 30% 가까이 곤두박질쳤다. 2002년 한국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뒤 조 대표는 직원들과 함께 공장에서 지냈다. 직원들이 끝까지 남아 회사를 지켜냈다. 이 사장은 사재를 털어서까지 직원 임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회사는 2006년께 정상화됐다. ▶A2면에 계속

이우성 기자 idol@hankyung.com

[2017 한국품질만족도 1위] 중소기업 경리업무 S/W 부문

1,000명의 경리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경리업무 어떤 점이 힘든가요?”

34% 매출매입 외상관리 입금내역 수납관리가 번거로워요. 외상대금 전액이 자꾸 틀려요.	30% 증빙관리 증빙 관리가 너무 번거로워요. 카드, 현금영수증 관리가 힘듭니다.	20% 세무신고 준비 부가세 신고기간에 너무 바빠요. 신고자료 준비가 어려워요.	16% 지출관리 지출결의서 작성이 너무 많아요. 매번 송금할 때 너무 신경 쓰여요.
-----------------------------------------------------------	--------------------------------------------------------	-------------------------------------------------------	---------------------------------------------------------

SERP경리나라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경리업무가 훨~ 줄어듭니다.

WWW.SERP.CO.KR
 가입문의 1670-3636

SERP 경리나라 중소기업 경리전문 소프트웨어

ASK 2018 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에셋 투자서밋

세계 최고 대체투자 전문가 총집결

프랑수아 피옹 前 프랑스 총리 타케하우캐피탈 파트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루크 엘리스 영 맨그룹 CEO	피터 필립스 영 윈튼캐피탈 부문장

한국경제신문사가 오는 5월29일부터 이틀간 글로벌 대체투자시장을 조망하는 'ASK 2018-글로벌 사모·헤지펀드·멀티에셋 투자 서밋'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연다.

첫날은 프랑스 총리를 지낸 프랑수아 피옹 타케하우캐피탈 파트너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최희남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모펀드(PDF)·사모대출펀드(PDF)와 자산배분 기능이 내재된 멀티에셋 시장의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제시합니다.

둘째날은 세계 3대 헤지펀드 운용회사인 영국 맨그룹의 루크 엘리스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또 세계 최대 추세추종전략(CTA) 전문 헤지펀드 운용사 영국 윈튼캐피탈의 피터 필립스 글로벌투자솔루션부부장 등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소개합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은 인터넷(www.asksummit.co.kr)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시: 5월29-30일 ●장소: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문의: ASK포럼 사무국 (02)360-4209

주최: 한국경제신문 후원: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KIC)